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HK+ Research Unit on Family Community, CNU

# 가족커뮤니티 FAMILY COMMUNITY

# FOCUS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포커스  
2020 하반기호

---

부정의 가족공동체: 배제, 혐오, 폭력

가족커뮤니티  
FAMILY COMMUNITY

# FOCUS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포커스  
2020 하반기호

## 부정의 가족공동체: 배제, 혐오, 폭력

### CONTENTS

#### <아젠다 기획>

인간본성과 혐오(김주선) .....	04
배타적인 공동체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텍스트 - 클로디아 랭킨의 『시민: 미국의 한 서정시』(김은영) .....	09
예수에게 가족이란 무엇이었을까? - 배제와 혐오에 대한 예수의 응답 (한수현) .....	16

#### <연구동향>

가족커뮤니티 그래픽스 .....	24
통계로 본 가족의 두 얼굴 .....	25
가족 영향력 분석의 기본 개념과 절차 .....	30

\*「가족커뮤니티 포커스」는 가족커뮤니티 국가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국내외의  
인문기반 다학문·융복합 가족 연구를 소개하고, 관련 사회 정책 동향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 포커스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인문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커뮤니티  
FAMILY COMMUNITY

# FOCUS

## 아젠다 기획

- 인간본성과 혐오(김주선)
- 배타적인 공동체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텍스트  
클로디아 랭킨의 『시민: 미국의 한 서정시』 (김은영)
- 예수에게 가족이란 무엇이였을까?  
배제와 혐오에 대한 예수의 응답 (한수현)

\* 기존의 가족 관련 정책, 제도, 담론에 대한 인문학적 진단과 함께 '가족친화인문사회'의 도약을 위한 인문학적 의제를 발굴하는 기획논문을 소개한다.

\* 아젠다 기획논문은 개별 연구자가 향후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요약입니다.  
인용을 삼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인간 본성과 혐오

- 김주선(조선대학교 강사)

나는 읽기 쉬운 글을 쓰고 싶었다. 1번에서 설명되는 복잡한 이론 따윈 건너뛰어도 상관없다. 내가 라캉의 회화론을 통해 말하려는 바는 인간 눈의 사악함이다. 탐욕과 질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실체 없는 사악함.

## 1. 시선, 응시, 질시

1964년 자크 라캉은 국제정신분석학회에서 과문당한다. 이를 ‘대과문’으로 칭했던 라캉은 자신의 주요 세미나 중 하나인 11번째 세미나를 시작한다. 여기서 실재, 대상 a 등의 라캉 특유의 개념과 과학으로서의 정신분석에 대한 담론이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골치 아픈 이론을 쓰려 하는 게 아니므로 간략히 넘어가겠다.

세미나 11에는 라캉의 유명한 회화론이 등장한다. 그는 먼저 자신이 방황하던 청년기에 겪은 신비한 일화를 꺼낸다. 방황하던 어느 날 작은 항구로 들어간 그는 한 어부 일가와 함께 조각배를 탄 적이 있다. 그 마을에는 특별한 선박이나 어업을 위한 기계가 없었으므로 위험하게 흔들리는 조각배에서 고기를 잡을 수밖에 없었다. 조각배 위에서 일명 꼬마장petit-jean이라 불리는 남자가 파도를 따라 떠다니는 빛나는 강통을 가리킨다. 장은 “보이나? 저 강통 보여? 그런데 강통은 자네를 보고 있지 않아!”라고 말한다. 라캉은 여기서 시선과 응시의 관계를 끌어낸다. 정신분석학적 주체에게 나타나는 현상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끌고 갈 생각은 없다. 간단히 말해 라캉에게 인간-주체는 3차원의 세계 속에 자신을 편입시키기 위해 기꺼이 스스로를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빛이 나를 응시하는 지점을 ‘실재’의 영역에 넣고 ‘나’는 상징계의 현상 속에, 누구에게나 보이는 곳에 놓는다. 응시는 ‘나’를 구성하되 내가 보지 못하는 영역이다.

다시 말해 내가 상대에게서 보는 것은 내가 보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상대가 보는 것 역시 내가 보여준 것은 아니다. 이 같은 사정은 사랑에서도 반복된다. 나는 내가 주고자 하는 사랑을 상대에게 정확히 건넬 수 없고 상대가 받은 것 역시 내가 의도했던 것은 아니다. 그 둘은 결코 일치할 수 없다. 그런데 바로 그 둘 사이에서 일종의 미혹이 발생한

다.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는 채로 끝린다.

회화도 응시와 시선이 복잡하게 얽힌 미혹이다. 그림 속에는 항상 어떤 응시와 같은 것이 존재한다. 관람객은 그것을 은연중에 따라가지만 사실 정확하진 않다. 관람자는 관람자에게 보이는 것을 본다. 그렇다면 회화 감상은 자기 정신을 찍는 폐쇄회로와 유사하단 말인가. 일단은 그렇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라캉에게 화가는 눈에 즐길 거리를 주면서 동시에 응시에 포기하도록 권유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화가는 미혹하되 미혹의 실체는 허상에 불과함을 보여준다. 물론 화가가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의도하는 화가도 있겠지만) 그들은 단지 그림을 그릴 뿐이다. 화가의 작업이 미혹의 헛됨을 보여준다는 통찰과 증명은 라캉의 것이다. 그림은 현실과 경쟁하지 않는다. 극사실주의의 경쟁 대상이 현실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여기서 한 번 더 복잡해진다. 그림은, 특히 재현회화는 어느 순간 자신이 진짜 현실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이 역시 관람자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지만, 그림이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을 수 있다. 그러나 곧 그림은 자신이 그림에 불과함을 스스로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물론 관람자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다), 어쨌거나 그림은 그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림은 현실 너머를,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무엇을 보여주지만 그 너머가 사실 허상임을 보여준다.

라캉은 세미나 11에서 플라톤을 공격한다. 플라톤이 대단한 문제라도 된다는 듯이 회화를 공격하는 이유는 그림이란 걸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 걸모습 그 자체임을 보여주는 걸모습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성화(聖畵)가 신비로운 것은 신의 존재를 가정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신 역시 그것을 보고 있다고 가정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스스로 의식하지 못한 채 만들어내기도 한다.

왜 만들어내는가? 욕심 때문이다. 눈의 욕심이 회화의 매혹적 가치를 만든다. 아름다운 것, 예쁜 것, 좋은 것, 갖고 싶은 것이 보인다면 그것은 눈 때문이다. 눈이라는 기관의 진정한 기능은 탐욕이다.<sup>1)</sup>

## 2. 나의 20살, 21살

2002년은 황홀한 해였다. 월드컵, 16강, 8강, 4강. 나는 02학번이었다. 선배들이 부러워했다. 새내기, 그것도 산소학번. 엄격하고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자란 탓에 칭찬이라곤 들어본 적 없는 내게 여자 선배들의 칭찬은 축포 같았다. 고등학교 때까지 제대로 본 적도 없는 여자들, 평생 느껴본 적 없는 향수 냄새, 팀 프로젝트(당연히 이성과), 늦은 시간까지 이성과 술 마시는 것, 강의실에 함께 들어가거나 함께 식사하는 것 모두 행복했다.

1) 자크 라캉, 맹정현 외 옮김 (2008), 『세미나 11』, 새물결, 143~179쪽.

이렇게 쓰고 보니 여자에 미쳐있었던 것처럼 읽힐까 두렵다. 어쨌거나 당시 곱슬기가 심했던 나는 아침마다 고데기로 머리를 피는 게 일이었다. 나중에는 매직스트레이트라는 걸 하고 다녔다. 유행하는 모자, 팔찌, 목걸이도 했다. 이 모든 것은 어떻게든 이성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필사의 몸부림이었다. (사춘기가 늦어서 그렇다고 하자.....)

2) 자크 라캉, 같은 책, 179쪽.

약간의 유머가 있었던 나는 나름대로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사실 학과의 인기는 두 명이 독점하고 있었다. 한 명은 모범생 느낌의 잘생긴 동기였고 다른 한 명은 중학교 때부터 잘 나갔을 것 같은, 담배를 멋지게 피우는 잘생긴 동기였다. 학과실이건, 술자리건, 사람들과 모여 있는 곳이라면 언제나 관심을 끌기 위해 춤을 추고 농담을 날리고 과격한 정치적 언행을 일삼았던 나지만 그 둘만 나타나면 모든 것이 망했다. 마치 그전까지의 나의 활약은 없었던 것처럼 모든 관심이 그들에게 쏠렸다. 그건 막을 수 없는 파도 같았다. 학과의 이성은 모범생 파와 잘 나가는 애 파로 나뉜 것 같다는 착각 속에서 살았다.

20살, 연애에 실패하고 21살로 접어들었다. 이번엔야말로 연애를 하리라. 그 둘에게 더 이상 빼앗길(?) 수는 없다. 새내기를 꼬드기는 게 얼마나 쉬운지는 선배들에게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다. 나름대로 자신도 있었다. 모범생과 잘 나가는 친구보다 나는 더 웃기는 사람이다. 내 얼굴도 괜찮다! 나도 괜찮은 놈이다! 마음에 드는 후배 앞에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지금도 기억난다. 부끄럽고 창피한데 뭐 과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어쨌거나 터지는 호르몬이었다. 얼굴에도 여드름이 상당했지만.

이미 정해진 결과였을까. 2003년 5월 어느 날 벚나무 아래서, 나는 나보다 그 잘생긴 모범생 친구 옆에서 더 얼굴을 붉히고 수줍어하는 후배를 보았다. 아, 역시, 안 될 놈은 안 되는구나. 세상 외모지상주의야. 세상은 타락했어. 나는 외모지상주의에 홀린(사실 모범생은 성격도 좋았는데 나는 그런 것 따윈 아예 신경 쓰지 않았다) 후배보다 그런 후배를 홀리는 둘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둘만 없다면 지금보다 내 인기가 훨씬 더 올라갈 것이니, 전과를 하던지, 편입을 하던지, 자퇴를 하던지 해. 제발. 가버려.

.....사실이 길었다. 눈의 탐욕을 이야기하는 라캉이 종래에 말하고자 하는 바는 ‘질시’다. 질시의 대상은 ‘갖고 싶지만 사실 꼭 갖고[하고] 싶어 할’ 만 한 것은 아니다. 라캉은 “질시란 통상 질시하는 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으며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이가 소유하고 있을 때 부추겨지는 감정”<sup>2)</sup>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은 대단히 묘하다. 소용의 정도는 ‘가져 본’ 사람만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인기를 얻지 못했던 나는 당시 내가 그것을 얼마나 갖고 싶어 했는지 영원히 알지 못한다. 단지 ‘질시’의 무시무시함을 알 뿐이다. 그들이, 내 인기를 독차지했던 그들이 사라지기를, 내가 이성의 관심에서 멀어져갈수록, 나를 거절한 그녀가 그들과 친하면 친할수록 그들이 사라지기를 바랐다. 나는 할 수 없이 침몰하는 배였다. 표면에 돛

대만 남았을 때쯤에는(그렇다고 믿었을 때에는) 그들이 증오스러웠다. 외모지상주의가 된 세상을 혐오했다.

그 후에는 군대에 갔다. 정신 차리고 돌아왔다.

### 3. 여성과 혐오

지금은 2020년이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온라인 소셜 스페이스 세상이다. 연예인이 있고 인플루언서가 있다. 일반인 중에도 스타는 넘친다. 세상은 살기 어렵다는데, 스타는 더 많아졌다. 남의 계정을 훑쳐보고 열등감이나 질시에 폭발하는 이도 수도 없다. 저주와 악담 속에서 여자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고 여자 인플루언서가 자살을 한다. 그들은 대개 젊다. 사회의 관습적 도덕과 거리를 둔다고 비판받는 이들도 있었다. 예컨대 노브라를 한다거나... 당연한 말이지만, 특정 연예인 한 명이 노브라를 했다는 게 평범한 나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나 고통을 주진 않는다. 그녀가 눈에 거슬린다면, 눈에 거슬러서 몸서리치는 비난과 조롱을 퍼부어야 했다면 왜일까.

단순한 비교를 해보겠다. 안정적인고 풍요로운 사회의 사람들은 좀 더 너그럽다. 기분 나쁜 일이 자기 삶의 다른 영역에서 쉽게 해소된다. 화목한 가정, 오래된 벗, 취미 생활이나 가벼운 운동. 경제력이 있다면 쇼핑을 해도 된다. 쇼핑은 도파민을 ping ping 쏘아낸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가 불안정하면 여유가 사라진다. 대한민국은 헬인가? 인생은 망가지고 되는 일도 없는데 내가 갖지 못한 것도 너무 많다. 뒷보다 세상은 힘 있는 자에 의해 돌아가는 것만 같다. 경제력이든 사회적 지위든 다 힘이다. 힘 때문에 당한 억울한 일이 누구에게나 있다. 갑질은 사회를 설명하는 단어 중 하나다. 한데 매체에 소개되는 일반인의 멋진 사연은 정말 정말 많아서(특히 네이버에 잘 소개된다) 나만 평범한 게 이상하다. 왜 내 인생만 이러한가?

물론 절대 다수가 크고 작은 유명인들의 인기와 부를 얻어 본 적이 없고, 얻을 일도 없으니 그들이 가진 것을 진정으로 원했는지 알기는 어렵다. 진정으로 돈을 원했는지는 부자가 된 이후에나 알 수 있다. 인기인이고 대중을 통해 돈을 벌었으니 감당해야 할 것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비난이나 조롱, 멸시와 혐오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마음이 가난한 이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을까. 본래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을까.

익히 알려져 있듯이 상당수의 2, 30대 남성은 페미니즘에 대단히 비판적이다. 남성의 사회 진출과 경제력, 여성의 사회 진출이 여성 혐오와 맞물려 있다는 것 역시 누구나 알

고 있다. 여성이 목소리를 내고, 집단의 목소리가 되고, 누군가가 들어야만 하는 목소리가 된 이유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일부 남성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것, 누리고 있던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마음이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더 심하다. 이상한 사상을 주장하는 여자들만 없다면, 정부의 해괴한 정책만 없다면, 여가부가 폐지된다면..... 정말 가능할까. 물론 그렇지 않다. 좋은 일자리는 한정돼 있다. 비정규직 천지다. 여자가 없으면 보다 낮은 직급이었던 수많은 남성과 다시 경쟁해야 한다.

3) 노르베르트 엘리아스, 박미애 옮김(1999), 『문명화과정1,2』, 한길사.

#### 4. 이제 무엇을

인간은 본래 악하다고 말했던 사상가가 많지만, 인간이 설사 본성적으로 악해도 그걸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다. 인간이 본래 악하다면 히틀러와 같은 이에게 일종의 면죄부가 생긴다는 이유 때문이다. 한데 라캉에게 인간 눈의 사악함은 기관 수준이다. 눈이라는 기관이 존재하는 한 인간은 탐욕과 질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성경에는 눈의 선함보다 악함이 훨씬 더 자주 등장한다. 이는 혐오와 증오가 인간 본성의 수준에서 작동하는 것임을 증명하지 않은가. 유대인을 혐오하고 증오했던 히틀러는 20세기 살인마의 대표자일 뿐이다. 특정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증오의 범죄는 어느 때나 어디에나 있었고 지금도 있다. 물론 세상의 역사는 생명존중의 방향으로 흘러왔다. 문명화 과정은 폭력에 대한 통제와 관리의 과정이기도 했다.<sup>3)</sup> 그러나 국가의 폭력 관리가 세계대전 같은 대규모의 전쟁을 가능하게 했다. 혐오와 증오가 인간의 본질 구성 요소 중 하나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인간 개체는 고통받을 때 고통의 평등화를 바라고, 고통받거나 고통받지 않을 때 저 혼자만의 안정이라도 바라는 존재는 아닐까.

#### 참고문헌

- 노르베르트 엘리아스(1999) 『문명화과정 1, 2』 박미애 옮김, 한길사.
- 자크 라캉(2008) 『세미나 11』 맹정현 외 옮김, 새물결.

# 배타적인 공동체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텍스트

## - 클로디아 랭킨의 『시민: 미국의 한 서정시』<sup>1)</sup>

김은영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독일의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카롤린 엠케는 그의 책 『혐오사회』에서 클로디아 랭킨 (Claudia Rankine, 1963~)의 시집 『시민: 미국의 한 서정시』(Citizen: An American Lyric)에 나오는 한 에피소드를 예로 들며 글을 시작하고 있다. 엠케가 언급한 시집의 에피소드에서는 ‘보이지 않는—눈에 띄지 않는, 무시당한,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흑인 소년을 밀쳐 넘어뜨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걸어가는 한 지하철 승객이 등장한다. 작가 랭킨의 묘사에 따르면 그 사람에게 흑인 소년은 “그가 보지 못했고, 본 적이 없고, 아마 그 자신의 모습이 아닌 누군가”(C 17)<sup>2)</sup>이기 때문이다. 엠케는 이를 매우 상징적으로 해석하며 “당신은 [...] 언젠가 누군가가 만들어내 표준이라며 내세운 특정 이미지에 부합하는 사람들만이 눈에 보이는 상황은 원치 않는다.[...] 당신은 [...], 애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는 표준이 존재하는 것 자체를 원치 않는다. 그 표준의 이미지를 머리에 새긴 다수와 단지 피부색이나 신체적 특징, 사랑하는 방식이나 종교, 희망하는 바가 다르다는 이유로 바닥에 밀쳐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33)”고 덧붙인다.

2020년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는 위조지폐 사용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플로이드는 체포 도중 목을 짓눌리는 과잉진압을 당하면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결국 사망했다. 그러나 이후 한 행인이 촬영한 영상과 경찰들의 보디캠 영상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개되었다. 이 영상들에 따르면 플로이드는 체포 당시 경찰에 크게 저항하지 않았고, 손이 뒤로 묶여 바닥에 엎드린 채 무릎으로 자신의 목을 짓누르는 경찰에게 “숨을 못 쉬겠어”(I can't breathe)라고 반복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플로이드의 영상을 본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기시감을 느꼈다. 2014년 블랙 라이브즈 매터(Black Lives Matter) 운동을 촉발시킨 에릭 가너(Eric Garner)의 죽음과 모든 것이 비슷했기 때문이다. 후에 블랙 라이브즈 매터의 슬로건이 된 “숨을 못 쉬겠어”라는 호소마저도.

왜 흑인의 몸은 보이지 않거나, 백인에게 위험한 몸으로 간주되는가? 2014년 미국비평가협회상을 수상한 랭킨의 『시민: 미국의 한 서정시』는 이 질문에서 시작되는 책이다. 이

1) 현재 학회 투고중인 글을 발췌한 것입니다. 인용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Claudia Rankine(2015), Citizen: An American Lyric, New York: Penguin, 이하 작품에 대한 인용 시 괄호 안에 『시민』으로 표시하고 쪽수를 표기함.

에 대한 답으로 『시민』은 인종주의에서 비롯된 마이크로어그레션에 대해 다루고 있다. 수(Derrald Wing Sue)에 따르면 “인종적 마이크로어그레션”(microaggression)<sup>3)</sup>은 1970 년대에 정신과 의사였던 체스터 피어스(Chester Pierce)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에게 일어나는, 미묘하지만 모욕적인 일상의 경험들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던 용어이다. 이 마이크로어그레션은 순간적으로 매일의 일상에서 무례한 행동과 모욕적인 언어로 발현된다. 이때 가해자의 행동은 고의적일 수도 있지만 무의식적일 수도 있다. 때문에 가해자는 상대방에게 행하는 그 공격의 의미를 전혀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고, 오히려 선의의 취지에서 비롯되었다고 자신의 행동을 변호할 수도 있다(5). 그렇다면 왜 인종주의가 아니라 마이크로어그레션인가? 랭킨은 『시민』에 관한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책의 내용의 중심을 이루는 마이크로어그레션에 대해 이야기한다.

마이크로어그레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를 조금씩 벗겨내는 인종주의의 형태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보다 정확한 어휘가 이 역학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보고 이해할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왜 우리는 마이크로와 매크로라는 말을 씁니까?, “왜 우리는 그것이 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인종주의적 행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라고 묻습니다. . . . 그러나 저는 [마이크로어그레션이] 인종주의가 삭제의 상이한 형태로 어떻게 세분화되는가를 보는 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Hudson and Price)

랭킨은 인종주의에 의해 타자가 되는 것, 존재가 “삭제”되는 것,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받는 것이 일상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가를 설명하는데 마이크로어그레션이 유용하다고 말한다. 랭킨이 『시민』에서 의도하는 바는 배타적인 백인 공동체에서 다양하게 변주되어 나타나는 마이크로어그레션의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다시 인종주의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 책에 직접적으로, 은유적으로 제시된 마이크로어그레션의 많은 사례들을 통해 독자들이 자신의 포지션을 예민하게 살피면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윤리적인 성찰을 수행하게 만들고자 함이다. 『시민』의 독특한 편집과 구성 또한 많은 논쟁을 낳았는데, 시와 더불어 책에 실린 다양한 시각 예술 작품들은 활자가 채우지 못한 감정의 공간을 보완하고 있다.

랭킨이 『시민』의 마이크로어그레션에 관한 여러 에피소드들에서 첫 번째로 강조하는 문제는 바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사회적 비가시성이다. 이 비가시성의 문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일상에서 빈번하게 맞닥뜨리는 문제이다. 『시민』에서 랭킨은 주변인들을 인터뷰를 채집하여 마이크로어그레션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제시한다.

식료품점에서 줄을 서 있다가 마침내 당신의 차례다,  
그런데 그가 당신 앞으로 걸어나와 카운터에 그의 물건들을 올려놓는 게 아닌가.  
직원이 선생님, 다음 차례는 그녀인데요 라고 말한다.

3) 국내에서는 microaggression을 ‘미묘한 차별’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랭킨의 책에서 이야기하는 microaggression은 미묘한 차별이 아니다. 이는 인종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일상에서의 차별이다. micro-라는 말은 차별의 정도가 사소하거나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영어 발음 그대로 마이크로어그레션이라 표기하기로 한다.

그가 당신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놀란다.  
아, 이런, 당신을 보지 못했네요.  
급한 일이 있나보죠, 라고 당신은 흔쾌히 말한다.  
아니, 아니, 아니요, 난 정말 당신을 못 봤어요. (『시민』 77)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인 당신은 남성(백인)의 행동을 실수로 가벼이 넘기려 하지만, 그 남성(백인)은 사과는 커녕 “보지 못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 남성은 정말로 그녀를 못 보았는가? 1952년 랠프 엘리슨(Ralph Ellison)이 『보이지 않는 인간』(Invisible Man)에서 말한 것처럼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 누군가가 사회적으로 타자였을 경우는 더욱 더,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바라보는 (백인의) 시선이란 (흑인인) 이들을 개별적인 한 인간이 아니라 “모든 흑인들은 똑같이 생겼다”(『시민』 7)라는 인종주의적 전형화라는 프레임 안에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비가시성은 배제와 차별로 이어진다. 전화 통화로 계약 의사를 밝힌 남성의 사무실에 서류를 가지고 “도착해서 당신임을 알릴 때, 그는 불쑥 말한다, 당신이 흑인인 줄 몰랐잖아요!”(『시민』 44)라고 소리치며 계약을 무산시키거나, 아이를 돌봐주러 온 친구라는 화자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착한 남자가 아니라” “위험적인 흑인 남자가 당신들의 집을 살피고 있다”(『시민』 15)며 화자의 친구를 경찰에 신고한 이웃의 에피소드는 일상에서 태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마이크로어그레션의 짧은 예일 뿐이다. 마이크로어그레션으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카운셀러를 방문한 환자가, 카운셀러의 집 마당에서 당장 나가라는 소리를 듣고 자신은 예약 환자라고 해명해야 했던 에피소드는 차라리 블랙 코미디에 가깝다(『시민』 18).

랭킨은 마이크로어그레션의 에피소드들의 범위를 일상에서 제도적인 것으로 넓혀간다. 이를 통해 랭킨은 일상을 넘어 백인들의 배타적인 공동체에 전체적으로 포진하고 있는 마이크로어그레션을 단순히 개인적인 실수와 일회적인 감정 소모 끝에 오는 화해와 같은 문제로 치부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랭킨은 최초 아프리카계 미국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Barack Obama)의 취임 선서 당시 대법원장 존 로버츠(John Roberts)가 선서문을 선창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한 사실을 독자들에게 상기시킨다. 로버츠는 “나는 미국의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 .”(“I do solemnly swear that I will faithfully / execute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 .”)를 “나는 미국에게 성실하게 대통령직을 수행할 것을 맹세합니다. . .”(“I do solemnly swear that I will execute // the office of President to the United States faithfully. . .”) (『시민』 113)로 잘못 읽었고, 이 때문에 오바마는 취임 하루 만에 두 번째 취임선서를 하기에 이른다. 랭킨은 로버츠의 말실수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며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이 발현된 마이크로어그레션의 한 예라고 암시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랭킨은 이 에피소드의 두 페이지를 가로질러 “LONG FORM BIRTH CERTIFICATE”<sup>4)</sup>이라는 큰 활자를 바탕에 겹쳐놓는다. 당시 출생주의자(Birther)들의 근거 없는 선동과 이를 확산하고 지지하는 백인들의 반응

4) 2008년 대통령 선거 캠페인 당시 버락 오바마는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시민이 아니며, 미국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는 루머에 시달렸다. 이러한 소문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결국 오바마는 자신의 출생지인 하와이 주정부에 출생지 조 회서(long form birth certificate) 발급을 의뢰했으며, 발급받은 증명서를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blog/2011/04/27/president-obamas-long-form-birth-certificate>)

이 로버츠의 말실수 뒤에 어른거리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랭킨은 로버츠가 “미국의”를 “미국에게”로 바꾼 것은 오바마를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취임선서를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오바마를 (미국의 국민으로 생각하기보다) 미국에 복종시켜야하는”(Ayres 232) 하위 주체 혹은 타자로 생각하는 무의식의 단편을 보여준 것이라고 간주한다.

랭킨은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는 마이크로어그레션을 앞 다투어 확산하는 역할을 자청하는 미디어에도 주목한다. 이를 위해 랭킨은 개인 대 개인의 마이크로어그레션을 넘어 이를 주입하고, 재생산하고, 과급하는 효과를 낳는 미디어의 마이크로어그레션을 비판하는데 페이지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시민』에서 랭킨은 백인의 스포츠이며 백인 관중들이 대다수인 테니스 경기장에서 ‘검은 몸’의 세레나 윌리엄스가 백인 여성 심판의 판정에 항의하는 광경에 대해 묘사한다. 그러나 2차원적인 TV 중계 화면은 잘못된 심판의 판정보다는 세레나의 거친 행동에만 초점을 맞춘다. 아울러 랭킨은 시간이 지난 후 세레나가 경기를 재계하고 심판의 부당한 판정과 차별을 참아냈을 때, “연애중인 여성이잖아, 라고 언급하거나, 또 다른 이는, 많이 컸네 / 라고 말한다, 인종주의의 부당함에 반응하는 것이 / 유치한 일인 것처럼”(『시민』 35)이라고 말하며 여러 방송 매체들의 반응에 대해 비판한다.

랭킨은 『시민』에서 특이한 점은 마이크로어그레션에 대한 에피소드 사이사이에 2인칭 화자의 트라우마와 신체적 반응을 나타내는 페이지들이 삽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어떤 순간들은 심장에 아드레날린을 보내고, 혀를 마르게 / 하고, 폐가 막히게 한다.”(『시민』 7)라고 구체적으로 묘사되거나, 화자의 침묵이나 말문이 가로막힘을 나타내는 텅 빈 페이지 여백의 물질성으로 구현되기도 하지만, 개인과 공동체의 집단적인 신체 반응에 대한 묘사로 그려지기도 한다. 이러한 묘사는 마이크로어그레션에 따른 트라우마와 신체적 반응들을 담보해 낼 수 있는 것은 텍스트가 갖고 있는 현장성에서 비롯된다. 『시민』이 많은 이들의 인터뷰와 증언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은 이 현장성에 대한 효과적인 참조가 된다. 세레나 윌리엄스의 테니스 경기를 관람하는 시민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그 시민들이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면? 이들은 흑인 예술가들에게 “성난 감동이의 걸모습”에 몰두해야 한다고 조언하는 유투버 제이슨 머슨(Jayson Musson)(C 23)의 방송을 보게 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일 수도 있고, “미국을 요구하는 핏발 선 눈들”(『시민』 112), “목구멍이 열리는 것을 듣고 있는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시민』 112), 잘못된 취임 선서를 목도하고 있는 시민들일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한 엠케는 다시 묻는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받는 것, 더 이상 사람으로서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누군가를 보이지 않는 사람 취급을 하거나 실제 자신과 뭔가 다른 존재로 보는 것은?(34).”

랭킨은 대학에서 자신을 고용한 것은 “위대한 작가들이 그 곳에 있을 때”(『시민』 10) 유색인을 고용하라는 학장의 지시였다는 사실을 곱씹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화자를 소개한다.

문이 닫힌 차고를 바라보고 있으니 친구가 당신에게  
말해준 의학 용어가 떠오른다 - 존  
헨리즘 - 인종주의에서 비롯된 스트레스에 노출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들은 삭제가 쌓이는 것을 회피하려고 하면서  
죽을 때까지 성취한다. (『시민』 11)

5) [https://en.wikipedia.org/wiki/John\\_Henryism](https://en.wikipedia.org/wiki/John_Henryism)

랭킨이 언급하고 있는 “존헨리즘”이란 기계와 비교당할 것이 두려워 과도한 노력을 기울여 기계보다 더 나은 결과를 산출했지만 결국 사망한 노동자 존 헨리에게서 비롯된 의학 용어이다. 즉, “존헨리즘”은 사회적 차별과 같은 스트레스에 오랫동안 노출되었던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몸에 축적되어 생리적인 대가를 치르면서도 더 많이 성취하려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sup>5)</sup> 이미 의학 분야 연구들에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른 흑인 남성들과 고혈압, 당뇨 등과의 상관관계를 증명하는 다수의 논문들이 발표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랭킨은 마이크로어그레션에서 비롯된 화자의 신체적인 반응을 “존헨리즘”이라는 용어로 집약시키면서 마이크로어그레션이 개인 대 개인의 문제가 아닌 배타적인 백인 중심 공동체의 정서가 빚어낸 집단적, 사회적,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한다. 존스(Shermaine M. Jones) 또한 『시민』에서 “한숨, 또는 인종적 탈진을 표현하는 길고, 깊고, 소리로 감지할 수 있는 호흡의 발산”이 포착됨을 지적하면서, 아울러 백인의 공간에서 목이 졸리거나 공중에 매달리는 느낌 등이 “정서적인 질식 상태”를 구체화해서 보여주는 반복적인 모티브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한다(39). 여기서 존스가 말하는 “정서적인 질식 상태”란 흑인들이 인종주의와 인종주의적 마이크로어그레션과 맞닥뜨렸을 때 생기는 분노, 공포, 슬픔 그리고 다른 여타의 감정들을 힘겹게 삼켜야만 한다고 체념하는 것에서 비롯된 감정 상태이다(38).

그렇다, 몸은 기억을 지니고 있다. 신체적 운반이란 그 무게  
이상을 끌어당기는 것이다. 몸은 각각의 부당한 부름이  
의식의 일부가 되는 문지방이다. 위협받지 않는,  
태연한, 움직이지 않는 모든 회복은  
겪었던 순간들을 지우지 않는다, 심지어 우리가 영원히  
바보이거나 또는 영원히 낙관적인 바로 그 순간에도, 내부에 자리잡으려  
준비한다, 게임의 일부 가운데에서도 (『시민』 28)

랭킨은 일상의 마이크로어그레션은 일회적인 사소한 사건으로 치부할 수도 있고 피해자 또한 표면적으로는 스트레스에서 회복된 듯 보이지만, 이것이 반복될 때 사람의 신체 안에 쌓이면서 신체와 정신을 병들게 한다고 말하고 있다. 트라우마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는 ‘몸은 기억한다’라는 상식이 바로 “존헨리즘”이라는 용어 속에 응축되어 있는 것이

다. 랭킨은 불안과 스트레스는 내러티브가 될 수 없고 오히려 내러티브를 방해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시민』에서 의도한 것은 언어의 공간 너머 몸으로만 기억되는, 보이지 않는 감정의 공간으로 들어가기 위해 다시 언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말한다(Ulin).

앞에서 언급했듯 랭킨은 마이크로어그레션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해 듣거나 목격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신체적인 반응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이는 랭킨식으로 본다면 몸으로 발현되는 적극적인 공감이다. 이를 위해 랭킨이 『시민』에서 보여주는 마이크로어그레션의 예는 어떠한 규칙도 없이 텍스트에 불쑥불쑥 등장한다. 그리고 책의 처음에서 끝까지 다양한 형식으로 변주하면서 반복된다. 왜 작가는 책의 유기적인 흐름을 방해하면서까지 이토록 많은 사례들을 제시하는가? 랭킨은 수없이 많은 에피소드를 제시하는 이 책의 의도는 독자의 몸 속에 어떤 반응이 축적되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라고 말한다.

나는 축적되는 느낌을 원했어요. 나는 정말로 썩어 썩어 쌓이는 순간을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실제로 쌓이기 때문이죠. 나는 이 모든 순간들이 정말 몸에 쌓이는 그 방식대로, 독자들의 몸에도 쌓이는 순간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을 찾아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반응할 때, 다른 한 사람은 그 순간들의 그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생각. 여러분은 그 순간들이 축적된 것에 반응하고 있는거죠. 나는 이 책이 이것을 할 수 있을 만큼, 그 느낌과 소통하기를 바랐어요. 침윤의 느낌. 딱 차있는 상태의 느낌, 나는 그것이 시몰라크라가 되기를 바랐어요. (Sharma)

『시민』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례들을 제시하는 랭킨의 전략은 비판적 인종 이론(Critical Race Theory)의 틀로 보면 특정 그룹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은 그 그룹에 대해 공감할 수 없다는 “공감의 오류”를 극복하고, 단지 다른 이에게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만으로 서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Ayre 235). 그 결과 『시민』은 더 넓은 범위의 독자를 포섭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랭킨은 (백인) 독자들을 비난하고 공격하기보다는, 그들에게 가장 익숙한 것을 뒤흔들고 재구성함으로써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Ayre 242). 이를 통해 『시민』은 독자들이 마이크로어그레션에 대해 자기검열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마련해준다.

이처럼 독자들의 반응, 혹은 랭킨이 말하는 독자에게 쌓이는 이 에피소드들의 효과는 랭킨이 굳이 『시민』의 부제로 이름을 붙인 “서정시”의 요구에 부응한다. 시에서 암시하는 감정이 독자에게 생생하게 전달되는 서정시, 그리고 이 감정에 대해 개인적이면서 주관적인 반응이 몸으로 나타나는 ‘몸의 서정시’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주류 문학 장르에서 벗어난 클로디아 랭킨의 『시민』은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통해 인종주의와 마이크로어그레션에 대한 담론을 가시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랭킨의 『시민』이 단지 가시성 확보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며, 여전히 오늘도 벌어지고 있는 인종주의와 마이크로어그레션의 현주소를 상기시키기 위해 현장성을 담보한 텍스트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프랑스 문화연구자 막심 세르빌은 블랙 라이브즈 매터(Black Lives Matter) 운동의 의의를 아카이브에서 찾고 있다. 세르빌은 이 운동이 “흑인의 생명, 파괴와 범죄, 책임뿐만 아니라 망각과 부정에 치중된 정치적 논리에 대해서 살아있는 아카이브를 만들어낸다. 폭력적인 행위를 기록하고, 누군가는 뿔뿔이 흩어져 있기를 원할 이야기들(트레이번 마틴, 마이클 브라운, 에릭 가너 등의 이야기)를 한데 모음으로써, 운동가들은 일종의 [영화상의] ‘몽타주’를 형성(40)”한다고 주장한다. 세르빌의 언급은 랭킨의 『시민』에도 유효하다. 『시민』은 활자와 다양한 예술 형식들을 동원하여 인종주의가 구체화된 마이크로어그레션과 그에 대한 정동의 절합을 만들어 내면서 인종주의에 대한 대안적 서사와 아카이브의 잠재력을 보여준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의 배경인 미국의 인종주의와 마이크로어그레션에 대한 것이 궁금하다면? 클로디아 랭킨의 『시민』을 찾아보라!

#### 참고문헌

- 세르빌, 막심(2020) 「빛을 들여다보기 - 백인성, 인종주의, 재현 체제」 『화이트 - 백인 재현의 정치학』 리처드 다이어 지음, 박소정 옮김, 서울: 컬처룩, 19-49.
- 엠케, 카롤린(2017) 『혐오사회』, 정지인 옮김, 파주: 다산초당.
- Ayres, Susan(2018) “Claudia Rankine’s Citizen: Documenting and Protesting America’s Halting toward Racial Justice and Equality.” *Alabama Civil Rights & Civil Liberties Law Review*, 9.2 (2018): 213-55.
- Hudson, Jenis and Price, Janeen(2016) “Interview with Claudia Rankine.” *CLA Journal* 60(1), 10-14.
- Jones, Shermaine M.(2017) “I Can’t Breathe!”: Affective Asphyxia in Claudia Rankine’s *Citizen: An American Lyric*. *South: A Scholarly Journal* 50(1), 37-45.
- Rankine, Claudia(2015) *Citizen: An American Lyric*. London: Penguin.
- Sharma, Meara(2014) “Claudia Rankine on Blackness as the Second Person.” *Guernica*, n. pag. Web. 29 Nov 2019.
- Sue, Derald Wing(2010) *Microaggression in Everyday Life—Race, Gender, and Sexual Orientation*. Hoboken: John Wiley & Sons.
- Ulin, David. L.(2016) “Claudia Rankine, The Art of Poetry No. 102.” *The Paris Review* 219, Winter, n. pag. Web. 18 Feb 2019.

# 예수에게 가족이란 무엇이었을까?

## - 배제와 혐오에 대한 예수의 응답

한수현 (감리교신학대학교 객원교수)

“예수에게 가족이란 무엇일까?”란 질문은 한국 사회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겐 그다지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있다. 이천년 전의 한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할까? 필자는 이 질문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 매우 중요하다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 1. 예수는 이혼을 금했는가?

2019년 한국에서 23만 9,200쌍이 결혼했다. 그리고 같은 해 11만 800쌍이 이혼했다.<sup>1)</sup> 한국 사회에서 이혼은 일상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이혼이 일상적이지 않은 곳이 있다. 바로 한국의 종교기관 중의 하나인 교회이다. 2015년 한국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종교를 가진 기혼자 중 배우자와 종교가 일치하는 비율이 73%로 개신교가 가장 높다.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 통계에 의하면, 전체 이혼 상담자들 중 기독교인이 2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확한 통계는 없지만 기독교 상담자들은 한국사회의 이혼율과 기독교인의 그것이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 결혼한 기독교인들 중 대부분이 같은 교회에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으며 부모가 기독교인 경우 그 자녀들도 같은 종교를 가지게 되는 비율이 높다.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일상화된 ‘이혼’이란 사건이 교회에서는 일상화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경전인 성서가 이혼을 금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국 기독교의 이혼에 대한 대표적인 이해는 마태복음 19장 9절에 기인한다. 본문에서 예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여기서 ‘음행’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와 한 몸을 이루는 행위의 뜻으로 받아들여 이혼을 제한한다. 이를 빌어 한국 교회에서는 배우자의 외도 이외의 이혼을 금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전제로 보면, 한국 기독교 안에서 이혼이란 사건이 나타났을 때,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이혼한 두 사람 중, 한 명이 외도를 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것이라 추측하기 쉽다. 이혼의 이유 중 가장 많은 ‘성격차이’ 같은 경우를 상상하는 사람은 매우 적을 것이다. 한 기독교윤리학자는 외도로 인한 가정의 파괴와 배우자가 불신자이기 때

1) 「2019년 혼인·이혼통계」,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0년 3월 19일 <http://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380972>

문에 일어나는 신앙적인 문제 이외의 이혼은 옳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도 배우자가 용서를 빌면 받아 주어야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sup>2)</sup> 이것은 이혼에 대한 한국교회의 자세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예수는 정말 이혼을 금했을까? 신약 성서학자들은 흔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참고하여 쓰였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마가복음이 가장 초기에 쓰인 일차자료이고 다른 복음서들은 일차자료를 중심으로 쓰였다는 의미이다. 마태복음의 이혼에 대한 예수의 말은 마가복음에서 다음과 같이 나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마가복음 10장 11-12절) 가장 초기의 본문에서 예수는 누구든지 자신의 배우자를 버리는 행위를 죄로 규정하고 있다. 마태복음보다 더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 이 말은 당시 종교지도자들 중 한 부류였던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라고 묻은 것에 대한 답변이었는데,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 아내를 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문의 주제는 이혼의 조건이 아니라, 남자가 이혼 증서를 쓰고 아내를 버리는 행위에 대한 예수의 대답이다. 누구든 배우자를 버릴 수 없다는, 바로 여성에 대한 합법적 배제를 금지하는 것이다. 당시 강력한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들은 결혼 전에는 아버지의 소유였고 이후에는 남편의 소유였다. 가부장인 남편은 당시 유대 사회의 전통에서 자신의 소유물인 아내를 집안에서 축출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를 금지하는 예수의 말은 당시 여성들에게 마지막 사회적 안전망인 가정을, 비록 매우 가부장적 구조이긴 했지만, 보장하려는 예수의 의도를 보여준다. 그러나 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으로 가서 ‘간음’이 조건으로 더해지게 되었고 이는 이혼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으로 변하게 되었다. 왜 마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의 표현이 이혼을 가르치는 대표적인 예수의 말로 이해되어 왔을까?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성서가 그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를 보존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혼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오류는 그 사회의 전통적 결혼의 이해를 성서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sup>3)</sup> 한국기독교, 그 중 특히 개신교의 초기 선교 과정에서 미국 보수주의 기독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음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1934년 당시 한국 개신교의 주요 교단인 장로교와 감리교에서 ‘아빙돈 단권 성경 주석’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이었다. 성서가 쓰인 역사적 상황에 맞춰 해석해야 한다는 서구의 진보적 기독교 사상이 담긴 아빙돈 성경 주석의 번역을 반대하고 성서무오설에 입각한 관점을 제창하였다. 결국 당시 아빙돈 성경 주석에 연관된 한국의 신학자들은 사과하거나 교단에서 제명되었고, 본 서는 구매, 열람, 참고가 금지되었다. 현재한국 주류 교단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건인 것이다.

한국의 기독교가 이러한 서구 보수 기독교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있었음을 감안할 때, 폴 오캘러한(Paul O'Callaghan)의 다음과 같은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오캘러한은 서구에 있어서 ‘보수적’(conservative)이란 하나의 ‘기질’(temper)를 의미하는데, 이는 자신

2) 신원하(2002), 「이혼가정이 늘고 있다 - 이혼은 제자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이혼에 대한 신학윤리학적 검토」 『기독교사상』, 46(5), 32~45쪽.

3) Stephen G Post(2000), More Lasting Union: Christianity, the Family, and Society, Grand Rapids, Mich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9쪽.

들이 받은 전통에 대해 “불안함과 두려움 사이의 양가적 감정”과 다른 한편으로 “깊은 이해와 감사의 동기”를 간직하는 기질이라 말한다.<sup>4)</sup> 그래서 그들은 전통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이상주의적이기 보다는 현실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그들 스스로의 이익에 복무하는 경향이 강하다. 결국 기독교의 보수주의자들은 기독교적 전통을 지키는 것에 치중하면서 권위적이고 엄세적인 기존의 질서에도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당시 전통에 대한 전복적 관점이 아닌, 마태복음의 기존 질서를 강화시키는 관점에 더욱 쉽게 반응하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성향을 가진 한국 사회의 25%정도의 기독교계가 끊임없이 기존의 전통적 질서를 기독교의 전통적 가치로 확대 재생산하는 것에 있다.

4) Paul O'Callaghan(2019), 'Is the Christian believer conservative or liberal?', "Church, Communication and Culture", 4:2, 137~151쪽, 138쪽.

## 2. 예수에게 가족이란 무엇이었을까?

21세기에 들어서서 한국사회의 가족에 대한 이해는 뚜렷하게 변화되고 있다. 19세기의 전통적인 대가족제도는 20세기에 들어와 핵가족화 되었고, 21세기에는 그 핵가족의 의미와 형태가 더욱 다양화되고 있다. 기존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이해되었던 아버지 중심의 가족형태는 성소수자나, 동거가족, 한부모 가정, 자녀가 없는 가정, 독신주의 동거인들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분화되고 있다. 가족의 정의와 형태는 그 사회의 가족에 대한 가치관보다 경제 상황과 도시화 등의 사회적 변화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한국사회의 낮은 출산율은 저성장 시대를 맞은 한국의 경제상황과 소득의 불균형으로 인한 경제적 빈곤에 대한 공포에 기인한다. 낮은 출산율은 여러 다양한 형태의 가족 형태, 무가족 또는 반려동물 중심의 가족형태를 수반한다. 이러한 가족 형태의 다양한 변화는 기존 가족제도의 해체로 이해할 수 있지만, 보수주의적 기독교인들에겐 가족 제도 자체의 위기로 받아들여진다. 세속사회의 변화에 엄세적 성향의 보수 기독교는 이를 세속사회의 도전으로 인식하고, 과거의 가족 이념을 이상화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가부장적 제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필자가 보기에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 한국기독교와 성서사이에 가장 큰 불협화음이 일어난다. 바로 가족에 대한 예수의 이해와 성서적 전통을 강조하는 보수기독교 사이의 부조화이다.

그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와 자매요 어머니니라. (마가복음 3장 31절-35절, 이후 '막'으로 표시)

복음서 중 가장 먼저 쓰인(공통시대 약 70년) 마가복음은 예수의 가족 이해를 그대로

보도하고 있다. 예수는 당시의 가족제도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 대신 자신의 신앙 체계를 통해 비판적으로 극복한다. 이러한 전복적인 예수의 가족 이해를 수천 년 전의 복음서가 간직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당시 기독교 공동체가 주류 사회에서 밀려나 있었기 때문이다. 주류사회의 가치를 대변하는 가족제도를 받아들이는 한,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 후로 오랫동안 성서의 저자들은 예수의 가족 이해를 변화시킬 이유가 없었다. 수백 년 동안 기독교는 주 변화된 집단이었기 때문이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 배나 받되...”(막 10:29-30)

어떤 젊은이가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막 10:17)의 결론인 위의 예수의 말에 주목해 보자. 당시의 ‘영생’이란 다가올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 살 수 있는 능력을 뜻했다. 즉, 새로운 시대를 살기 위해서 버려야 할 대상으로 예수는 가족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다시 받을 집과 새로운 가족들 중 ‘아버지’는 제외되어 있다. 이는 당시 가부장적 아버지 중심의 가족 제도에 대한 예수의 비판을 볼 수 있는 구절이다. 또한 예수가 의미하는 새로운 가족, 백 배나 늘어난 가족은 당시의 예수 공동체를 의미한 것이다. 소위 ‘영생’을 통해 살아가야 할 새로운 시대 또는 세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기존의 가족에 대한 통념과 틀, 그리고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가족으로 재정의하는 동인이 된다. 한편 영생과 연관되는 ‘부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몸을 얻는 것에 대해 예수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막 12:25)라고 말함으로 새로운 시대의 가족의 개념에서 결혼 제도를 부정한다.

### 3. 예수의 가르침 VS 근본주의의 공격

기존의 질서와 세계관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를 따르던 공동체가 남긴 신약성서에는 지금까지 언급한 바와 같이 결혼제도를 중심으로 한 가부장적 가족 이데올로기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 그러나 기존 질서의 계승적 경향이 강한 한국 보수 기독교에서 가정에 대한 이데올로기는 예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기존 사회의 틀에서 더욱 강화된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주장한다.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한국 기독교의 이혼에 대한 강한 부정에서 드러난다. 여전히 남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근무환경을 가진 한국 사회의 여성들에게 이혼은 매우 힘든 결정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형태의 가정폭력과 편중된 가사 노동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들은 이혼을 고민할 때 기독교회로부터 배제될 각오를 해야 한다.

대부분의 한국 기독교는 21세기 한국 사회의 변화에 전통적인 가치관을 고수하면서 변화를 배제하는 배타적 태도를 일관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가족에 대한 이해인데, 이는 무비판적으로 미국 보수주의 기독교의 가족관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은 미국사회에서 기독교 근본주의가 가장 강력하게 발흥한 기간이다. 기독교 근본주의 운동은 전통적인 미국의 애국주의와 가족주의를 결합하여 강력한 정치 세력으로 성장했다.

앞에서는 보수주의로 설명했지만 기독교의 보수주의적 경향이 정치적 형태로 바뀔 때 선택하는 노선중의 하나가 바로 애국주의와 가족주의 중심의 근본주의이다. 이들의 목적은 인간 사회 자체의 변화이며 이를 위해서 타락한 도덕관을 갱신해야 한다고 믿는다.<sup>5)</sup> 이후에 근본주의의 중요한 발판이 되는 기독교 우파의 탄생은 1950-60년대 베트남 전쟁, 흑인 폭동 등으로 인해 미국사회에 나타난 반전운동과 히피문화에 기인한다. 전통과 기존질서를 거부하는 당시 시대정신이 휩쓸고 간 1970년대 후반에 나타난 기독교 우파는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미국의 모든 사회적 기반이 가족제도가 무너지는 순간 모두 몰락할 것이라 주장하면서 기독교적 가치에 입각한 가정을 이상화하기 시작했다.<sup>6)</sup>

그들이 이상화한 가정은 소위 '청교도적 가족'이었는데, 결국 이는 철저한 가부장제를 중심으로 하여 근대적 개인을 가족제도 내의 종속적 위치로 환원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들의 활동은 교회 내에 머물러 있지 않았는데, 이들이 이상적 가족제도를 강조하기 위해 공격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바로 이혼, 출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성관계, 낙태, 그리고 동성애였다. 그러나 1970년대는 이미 미국사회가 가부장 중심의 핵가족 중심에서 급속하게 이탈하고 있을 때였다. 이혼율은 급증했고, 여성들은 직업을 가지고 독립하기 시작했으며,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1980년대에 들어서며 근본주의 기독교는 낙태와 동성애로 그 공격 대상을 좁히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낙태반대운동과 반동성애 전선이 나타난 것이다. 헬렌 하다크레는 근본주의자들의 이러한 전략은 그 사회를 변화시키기 보다는 남성의 가부장적 권위를 극대화함으로써, 미국사회의 불평등 관계들을 유지시키거나 영속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한다.<sup>7)</sup>

#### 4. 근본주의의 위기의식과 차별금지법 반대운동

현재 한국 사회의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한국 기독교의 대응은 매우 닮아있다. 필자가 앞에서 밝혔듯이 한국 기독교의 일반적인 성향은 미국의 근본주의에 매우 가까우며 세상에 대한 인식 또한 비슷하다. 신자유주의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아 강남의 대형교회의 주류가 된 신도들과 그들을 부러워하는 다른 지역의 교회들로 대표되는 한국의 대형교회는 성공과 웰빙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종교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되었다. 자연스럽게 한국교회는 그러한 경쟁에서 도태된 신도들이나 젊은

5) 임희숙(2008), 「현대 미국사회에서 가족변화에 대한 기독교 근본주의의 대응에 관한 성 인지적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56(1), 257~258쪽.

6) James Davison Hunter(1987), *Evangelicalism: The Coming Genera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82쪽.

7) Helen Hardacre(1993), *The Impact of Fundamentalism on Women, the Family, and Interpersonal Relations*, Martin E. Marty and R. Scott Appleby ed, *Fundamentalism and Society: Reclaiming the Sciences, the Family, and Educa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38쪽.

이들을 포용할 수 없었다. 이에 기존의 독재시대의 반공 이데올로기나 반독재 투쟁에 익숙한 기성세대들은 이분법적이고 투쟁적인 언어로 가득한 근본주의적 신앙관과 정치의식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리고 경쟁사회에서 도태되어 열패감에 젖은 젊은이들은 신앙을 포기하고 떠나거나 현실 세계를 부정하는 염세적 세계관과 자신의 실패를 타자에게서 찾는 것에 익숙한 근본주의 세계관에 경도되고 만다. 바로 배제와 혐오의 언어들과 한국의 보수적 기독교 신앙관이 결합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결국 한국 기독교의 보수적 근본주의는 태극기와 일베가 가지는 정치관과 매우 유사한 성격을 띠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선택한 정치적 주제는 아이러니하게도 반동성애이다. 급격히 떨어진 출산율로 인해 낙태 등의 사회적 이슈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이제는 일상적 상식이 된 50% 가까운 이혼율에 황혼이혼까지 더해지면서 더 이상 교회는 정상적 핵가족 이데올로기만 주장할 순 없게 되었다. 결국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교회 밖에 소외되어 있는 성소수자들, 교회가 생각하는 정상가족에 범주에 들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들에게 눈을 돌린 것이다. 그것의 정치적 운동으로 표출된 것이 최근 한국 사회에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이다.

## 5. 교회는 왜 배제와 혐오의 장소가 되어가는가?

21세기 한국사회에서 예수에 대해 말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같은 예수의 이름으로 혐오의 언어를 말하고 그런 언어에 익숙한 세대를 길러내고 있는 장소가 한국의 교회가 되어왔기 때문이다. 필자는 본 글에서 현재 한국사회의 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한 갈등의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차별금지법과 동성애가 보수 기독교 운동의 주제가 된 것은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한국 기독교의 보수성(conservative)이 급진화된 결과이다. 소위 애국적 반공 이데올로기와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내세웠던 미국의 보수주의적 근본주의가 한국 사회에서 반동성애 운동으로 변한 것이다. 그 이유는 저출산과 높아진 이혼률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가족을 중심으로 한 주제를 말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한국 교회의 배제와 혐오는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고집하는 한국 교회의 보수성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여전히 성서가 말하는 가족의 전통적 의미를 말하는 것은 각 진영이 가지고 있는 비슷한 관심을 연결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한국 사회의 변화를 논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신원하(2002) 「이혼가정이 늘고 있다-이혼은 제자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이혼에 대한 신학윤리학적 검토」, 『기독교사상』 2002년 5월호, 대한기독교서회.
- 임희숙(2008) 「현대 미국사회에서 가족변화에 대한 기독교 근본주의의 대응에 관한 성 인지적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008년 4월호, 한국기독교학회.
- Hardacre, Helen(1993) *The Impact of Fundamentalism on Women, the Family, and Interpersonal Relations*. Martin E. Marty and R. Scott Appleby. ed. *Fundamentalism and Society: Reclaiming the Sciences, the Family, and Educa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unter, James Davison(1987) *Evangelism: The Coming Genera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O'Callaghan, Paul(2019) "Is the Christian believer conservative or liberal?" *Church, Communication and Culture* 4(2).
- Post, Stephen G.(2000) *More Lasting Union: Christianity, the Family, and Society*. Grand Rapids, Mich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 「2019년 혼인·이혼통계」,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0년 3월 19일  
<http://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380972>

가족커뮤니티  
FAMILY COMMUNITY

# FOCUS

## 연구동향

1. 가족커뮤니티 그래픽스
2. 통계로 본 가족의 두 얼굴
3. 가족 영향력 분석의 기본 개념과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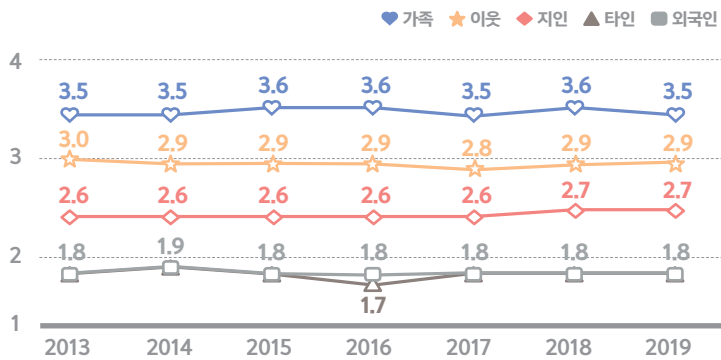
\* 한국의 가족 정책과 관련된 의미있는 통계 자료와 시사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인포그래픽스와 더불어 정부의 가족관련 정책과제와 사회 이슈, 세계가족정책 사례 및 통계들을 재구성 및 요약하여 제공한다.

# 가족커뮤니티 사회통합실태조사로 본 가족공동체의 신뢰와 포용 그래픽스



집단별 신뢰 정도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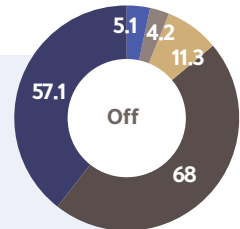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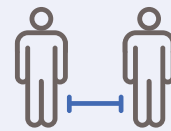
(단위: 점, 척도: 1~4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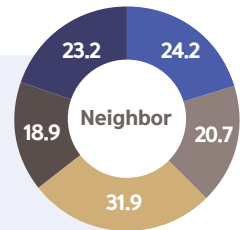
집단 구성원 포용 정도

장애인, 결혼가정 자녀, 전과자, 외국인이민자, 노동자, 동성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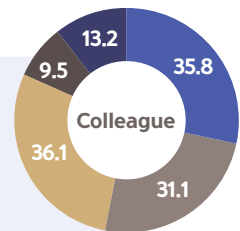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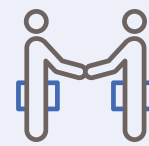
받아들일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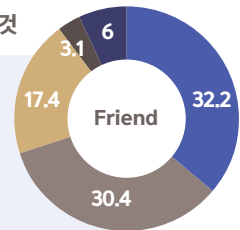
나의 이웃이 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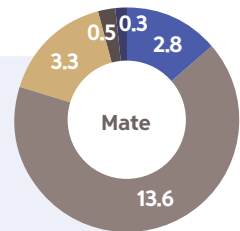
나의 직장동료가 되는 것



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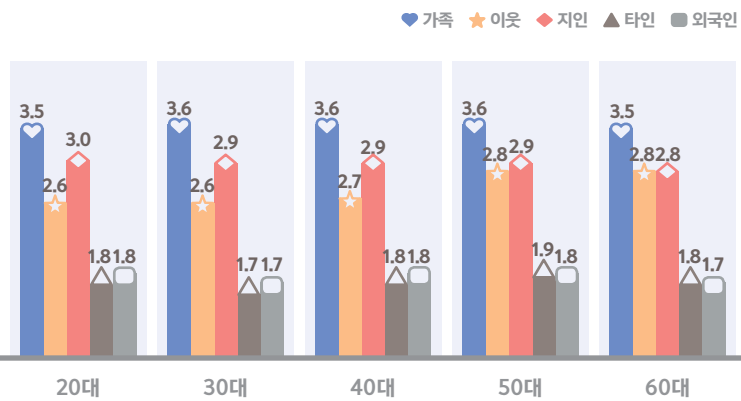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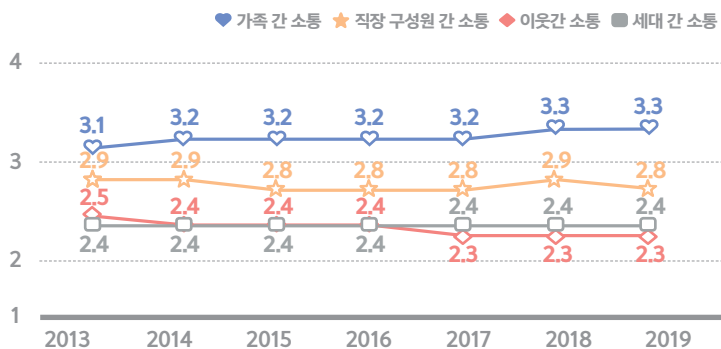
연령별 주요 집단에 대한 신뢰 정도 차이 (2019)

(단위: 점, 척도: 1~4점)



집단 간 소통 인식 연도별 추이

(단위: 점, 척도: 1~4점)



# 통계로 본 가족의 두 얼굴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주관하여 매년 실시하는 <사회통합실태조사>와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에서 실시하는 <한국종합사회조사>를 통해 사회통계에 나타난 가족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재조명한다. <사회통합실태조사>는 201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매년 시행되는 국가승인통계이다. 이 조사는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사회의 통합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및 변화 추이를 파악하는 기초자료이다. 이번 호에서는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소통과 신뢰” 부분을 일부 재구성하여 소개한다. <한국종합사회조사>는 삶의 질과 관련된 국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가정폭력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우리 사회 가정폭력의 전반적 실태와 추이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여 보고한다. 이 가운데 가족가치관 및 폭력과 관련된 기초조사를 재구성하였음을 밝힌다.

## 1. 가장 신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집단은 가족이다?

한국사회에서 가족은 가장 신뢰하는 집단이며, 다음으로는 지인, 이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또한 우리 사회는 사적(가족, 이웃, 지인) 신뢰도가 공적(중앙정부, 지자체) 신뢰도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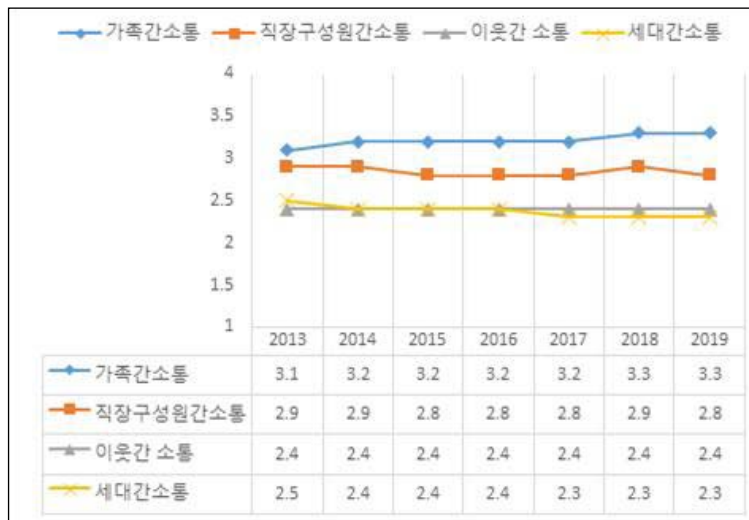
**<표 1> 집단별 신뢰 및 소통 수준**

	가족	이웃	지인	낯선사람	국내거주외국인	중앙정부	지자체
2019	3.5	2.7	2.9	1.8	1.8	2.3	2.4
2018	3.6	2.7	2.9	1.8	1.8	2.4	2.5
2017	3.5	2.6	2.8	1.8	1.8	2.3	2.4
2016	3.6	2.6	2.9	1.7	1.8	2	2.3
2015	3.6	2.6	2.9	1.8	1.8	2.2	2.3
2014	3.5	2.6	2.9	1.9	1.9	2.2	2.3
2013	3.5	2.6	3	1.8	1.8	2.2	2.4

출처: 한국행정연구원(2016, 2018) 사회통합실태조사

집단별 소통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도 2013년부터 현재까지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집단은 가족인 반면에 세대 간, 이웃 간 소통은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그림1>).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사회에서 가족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집단이자 소통할 수 있는 집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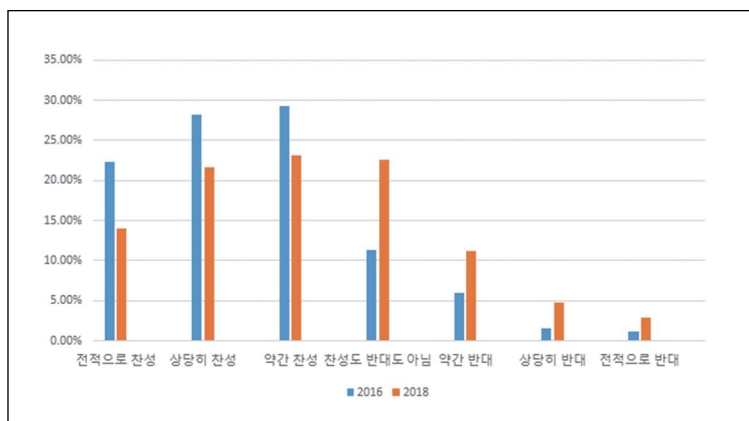
<그림 1> 집단간 소통인식의 연도별 추이(단위: 점, 1~4점)



출처: 한국행정연구원(2019)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종합사회조사> (2016, 2018)에서 가부장제 가치 인식에 대한 질문, 즉 “자기 자신보다 가족의 안녕과 이해를 우선시해야 한다”에 대한 응답 결과, 가족의 안녕과 이해를 우선시한다는 답변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가족중심주의가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비해 2018년 가족 우선에 대한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가족중심주의의 균열 내지는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그림 2> 자기 자신보다 가족의 안녕과 이해를 우선시 해야 한다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2016, 2018) 한국종합사회조사

## 2. 가족의 폭력성과 포용성?

가족은 힘이 되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하며 친밀함 뒤에 미묘한 갈등과 폭력성이 숨어 있기도 하다. 가족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큰 만큼 그에 따른 고통도 있다. 2019년 기준, <가정폭력실태조사> 결과 가정폭력실태 전체 가정 중 여성 응답자의 28.9%, 남성 응답자의 26.0%가 지난 1년 동안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 통제 피해 중 하나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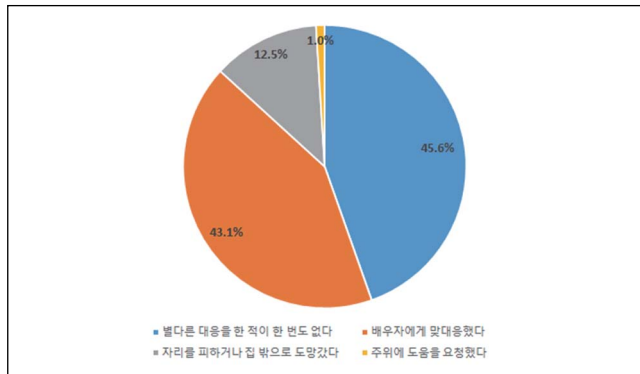
〈표 2〉 가정폭력 유형별 비중

구분		5개유형폭력							
		4개유형폭력					통제	피해율 소계	
		신체적/성적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			피해율 소계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피해율 소계					
전체		1.5	2.6	3.7	1	7.2	8.8	25	27.5
여성		2.1	4.6	5.9	1.2	8.3	10.9	25.4	28.9
남성		0.9	0.6	1.3	0.8	6	6.6	24.5	26
만65세 미만	여성	2.1	4.9	6.1	1.2	8.4	11.2	26.2	29.7
	남성	1	0.7	1.5	0.8	6.1	6.6	25.6	26.7
	소계	1.6	2.9	3.9	1	7.3	9	25.9	28.3
만65세 이상	여성	2.4	2	4	1.3	7.5	8.8	18.5	21.3
	남성	0.3		0.3	1	5.7	6.4	17.9	21.7
	소계	1.2	0.9	1.9	1.2	6.5	7.4	18.2	21.5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9) 가정폭력실태조사

특히, 배우자 폭력대응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 45.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맞 대응했다가 43.1%, 그 자리를 피했다 12.5%, 주위에 도움을 청했다 1%로 나타나 주위에 도움을 청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경우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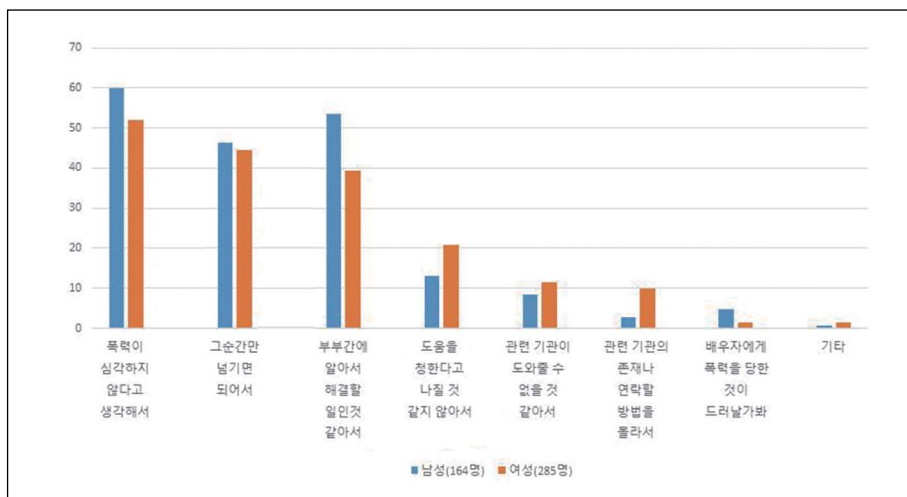
〈그림 3〉 배우자의 폭력행동에 대한 대응(중복응답)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9) 가정폭력실태조사

이에 대한 대응 행동에 있어서는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비중이 과반수이상(남성, 60%, 여성 51.9%)이었다. 또한 부부만의 문제여서 부부끼리 해결하고자 하는 의식 역시 높았는데, 이에 대해 남성(53.6%)이 여성(39.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관련기관의 인식이나 신뢰도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사회 배우자폭력에 대한 대응의 방식이 여전히 사적 영역 내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폭력 발생이후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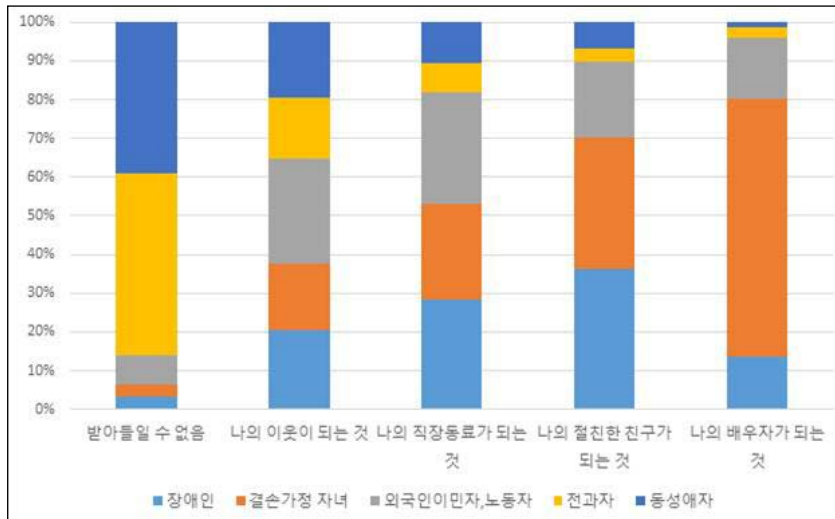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9) 가정폭력실태조사

한국의 높은 가족중심주의의 가치관은 한편으로 신뢰와 소통의 근간이 되기도 하지만, 가족 내의 폭력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폐쇄성을 강화하는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가족이 되는 과정 역시 '가족' 포용성의 한계를 보여준다. <사회통합실태조사>(2019)결과, 개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집단은 '전과자'(68%), '동성애자'(57.1%) 순으로 가장 높았으며, 배우자가 되는 것에 있어서는 '결손가정 자녀'(13.6%)만이 일부 받아들여졌으며, 장애인, 외국인, 전과자, 동성애자 모두

3% 이하였다. 포용성 및 폭력성의 실태는 가족 내부에 자리한 '정상적인' 가족관계의 규범이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5〉 집단구성원 포용 정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2019) 사회통합실태조사

### 3. 나가며

가족-개인 사이의 우선순위는 변화하지 않고 여전히 가족중심주의가 공고한 듯 보이지만,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가족중심주의는 분명 약화되고 있다. 동시에 집단별 포용성을 통해서 개인의 선택에 있어 사회적인 규범, 정상적인 '가족'이데올로기는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애인, 전과자, 외국인, 동성애자 등의 포용성 인식을 통해 장애, 이주, 인종 등의 위계가 가족 안에서, 사회 안에서 공고히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사회, 국가의 미래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 사회적 재난 속에서 의지하고 신뢰할 집단은 단연코 가족이다. 그렇기에 가족을 둘러싼 친밀성의 모델에 대한 탐색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혈연과 이성애가족 중심의 가족 관계를 넘어 새로운 의미의 가족공동체, 가족적인 것의 의미를 발전시키고, 서로 다른 사적 경험과 삶의 배경이 폭력과 착취의 근거가 아닌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에 대한 탐색 역시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각년도,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 각년도,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가족 영향력 분석의 기본 개념과 절차

번역: 사업기획부

감수: 강의혁(인문학연구원, HK교수)

<해외연구동향>에서 소개하는 “가족 영향력 분석의 기본 개념과 절차”는 가족 영향력 분석을 위한 미국 퍼듀대학교(Purdue University)의 가족 영향연구소(Family Impact Institute)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오픈 리소스 가운데 “국가가족관계위원회의 다양성 정의(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Definition of Diversity)”, “가족다양성과 맥락(Family Diversity and Contexts)”, “가족영향체크리스트(Family Impact Checklists)” 각각을 번역한 글임을 밝힌다. 원문의 출처는 퍼듀대학교 가족영향연구소 홈페이지-Family Impact이다.  
<https://www.purdue.edu/hhs/hdfs/fii/family-impact/> (검색일: 2019. 12. 30)

## 국가가족관계위원회의 다양성 정의

다양성은 NCFR의 리더와 회원들이 경험해온 다양한 배경과 맥락들을 설명하기 위한 기술적 용어이다. 다양성은 역동적이며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다양성의 존중을 위해서는 모든 집단을 열린 관점으로 새롭게 바라보려는 태도가 요청된다.

다양성을 포용한다는 것은 모든 집단이 동일한 방식으로 이 세계를 살아가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성의 관점은 1)주변화된 집단의 배제 뿐 아니라 2)권력, 특권, 그리고 접근성의 불균형을 적시하게 도와준다. 이 관점은 일부 집단이 비가시화되거나 인식의 결여로 인해 무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어 보여준다. 또한 다양성은 다양한 개인들, 커플들, 가족들, 집단들, 사회들이 저마다 갖는 강점, 지혜, 역량에 주목한다.

다양성의 양상들은 아래의 리스트를 포함하지만, 여기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능력과 장애
- 원주민, 혼혈, 이주민
- 나이
- 이중 언어사용과 다문화 전통, 영어 학습자
- 몸의 크기와 상태
- 관습과 전통
- 교육, 전공, 경력으로 인한 사회적 지위
- 인종, 민족, 국적 또는 문화정체성
- 젠더, 젠더정체성, 젠더 표현
- 지리적 환경과 위치
- 결혼 상태, 동반 관계 상태 (독신 포함) 그리고 가족 구성 혹은 가족 정체성
-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세계관과 입장
-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참여단체
- 종교/무교, 영성 및 소속, 신앙
-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 표현
- 사회경제적 지위, 주거 지위, 사회계급, 고용 서비스 및 군필 여부

[Note: The aspects are listed alphabetically, but not in any order of priority.]

NCFR Board Approval - May 22, 2016 Page 1

원문 출처: <https://www.ncfr.org/about/inclusion-and-diversity>

## 가족다양성과 맥락

정책과 프로그램은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에게 가족이 작동하는 여러 측면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준다. 아래의 틀은 다양한 가족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을 준다. 아래의 도식은 다양한 종류의 가족 유형들, 가족의 맥락들, 가족 생애주기의 배경들을 목록화한다. 이 목록은 가족의 형태와 기능의 다양성에 관한 사고를 자극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모든 것을 포괄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가족유형	가족 생애 주기 단계	가족 맥락들
<p><b>사회경제적 특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수준</li> <li>▶ 소득수준</li> <li>▶ 직업구조</li> <li>▶ 부양자녀가 있거나 없는 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혼</li> <li>• 동거</li> <li>• 첫 결혼</li> <li>• 재혼/재구성 가족</li> <li>• 생활동반자 관계</li> </ul> </li> <li>▶ 한부모 가정 또는 비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거 가족</li> <li>• 이혼</li> <li>• 사별</li> <li>• 자의적 싱글</li> </ul> </li> <li>▶ 위탁 가정</li> <li>▶ 입양 가정</li> <li>▶ 불화, 소원해진 가정</li> <li>▶ 핵가족/확장가족/다세대 가구</li> <li>▶ 없음/1인 생계/2인 생계/복수임금 근로자</li> <li>▶ “따로 사는” 가족과 커플들, 즉 자신들을 커플관계로 규정하지만, 다른 가구에서 분리되어 사는 결혼 또는 동거중인 가족과 커플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이트</li> <li>▶ 중매, 소개팅</li> <li>▶ 동거</li> <li>▶ 무자녀</li> <li>▶ 초기 형성-영유아 및 미취학 아동과 함께</li> <li>▶ 학령기 아동과 함께</li> <li>▶ 성인기로 전환하는 자녀와 함께</li> <li>▶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li> <li>▶ 노인 부양가족과 함께</li> <li>▶ 성인 자녀 또는 손자녀가 있는 노약자</li> <li>▶ 젊은 세대와 노인 부양가족 모두가 있는 ‘샌드위치’세대-중년의 성인</li> <li>▶ 발달장애가 있는 가족을 부양하는 가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족/인종/문화적</li> <li>▶ 종교적인</li> <li>▶ 사회경제적인</li> <li>▶ 지리적(농촌/교외/도시)</li> <li>▶ 특별한 돌봄의 필요여부 (예, 인지적, 감정적, 신체적 등)</li> <li>▶ 비공식적인 사회 네트워크 (확장된 가족, 친구, 이웃, 동료, 또래집단)</li> </ul>

## 가족 영향 체크리스트

### 가족 강화의 근거 사용하기

정치 영역 전반에 걸치는 정책입안자들은 확실하게 선거에 이길 수 있는 전략으로 가족을 지지한다. 연구자들은 가족이 학문적 성공, 경제적 생산성, 사회 적응 능력 등에서 매우 가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가족들을 교육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은 각종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족 중심 접근의 유용성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과 실행의 일상적인 범주에서 가족에 대한 고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족을 지지한다는 수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가족 영향 체크리스트는,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다양한 모습을 한 가족들을 강화하고 지지하는 방식으로 각종 정책과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또 평가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기반전략의 하나이다. 이 체크리스트는 또한 가족 책임, 가족 안정성, 그리고 가족 관계들에 대하여 여러 정책, 프로그램, 기관, 조직이 의도하였거나, 혹은 의도치 않게 도출된 결과들을 검토함으로써 가족 영향 분석을 수행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어떤 유형의 가족들이 영향을 받는가? 가족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도움을 얻으며 또 어떤 방식으로 상처를 입는가? 각 구성원들을 지지할 수 있는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사회 기여도를 강화하기 위해 어떤 절차들이 필요한가?

여기에 있는 간략한 안내는 가족 영향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가족 영향 체크리스트를 쓰는 방법을 네 단계로 정리한 개요를 제공한다. 가족영향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보다 자세한 가이드라인과 절차는 가족 영향 협회(<http://www.familyimpactseminars.org>)에서 발간한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가족 영향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체크리스트 사용하기

**1. 규칙, 법률, 법, 프로그램, 기관 또는 조직을 선택하라. 그리고 어떤 요소를 분석할지 결정하라.** 가족의 영향력 분석은 규칙, 법률, 법 또는 프로그램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기관이나 조직의 가족 중심 운영 규정(절차)을 평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법원의 결정, 규제, 행정적 실행, 이행 절차 또한 가족의 웰빙에 대한 영향력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다. 가족 영향력 분석은 정책 또는 프로그램이 고안되고 있는 초기 단계에서 예비절차로 수행될 수도 있으며, 정책과 프로그램이 이행되는 중간단계에서도, 그리고 이들을 평가하고 재인가하는 후기 단계에서도 수행될 수 있다.

**2. 어떤 유형의 가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결정하라.** 가족은 다양한 형태와 구성으로 다가온다. 과정을 시작하면서 정책, 프로그램 또는 실행에 의해 어떤 가족 유형이 영향을 받을지를 짚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유형의 가족들이 정책, 프로그램, 또는 실행에 의해 현재 그리고 향후 영향을 받을 것인가?

- 특정한 가족 구조들?
- 생애주기의 특정 단계에 있는 가족?
- 특정한 소득이나 교육수준의 가족들?
- 특정한 문화, 지리, 인종/민족, 또는 종교적 배경을 지닌 가족들?
-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구성원이 있는 가족들?
- 합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가족으로서 기능하는 사람들?

**3. 가족 영향력 체크리스트를 선택하고 분석을 수행하라.** 가족 영향력 분석은 (a)가족에 대한, (b) 가족 영향력 분석에 대한, (c) 정책, 프로그램, 기관 또는 조직의 세부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포함할 때 가장 예리하면서도 포괄적이다. 가족 영향력 체크리스트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다섯 개의 기본 원칙이다. 각 원칙에는 어떤 쟁점과 관련된 가족들이 그 쟁점에 참여하는 방식들, 그 가족들이 영향받는 방식들, 그리고 참여 가족들이 더 나은 해결책을 얻게 되는가의 여부 등을 깊이 탐구하는 근거 기반 질문들이 뒤따른다. 모든 원칙과 질문들이 모든 주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재 제기된 쟁점에 가장 관련 있는 원칙과 질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소개된 질문들이 단순하게 틀릴 수도 있지만 답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원칙들은 순위에 따른 것이 아니며 때때로 서로 간에 충돌하기도 한다. 쟁점 사안에 따라서는 한 원칙이 다른 것보다 더 가치 있게 평가될 수도 있으며, 트레이드오프(동시에 충족시킬 수 없는 몇 가지 조건의 취사(取舍)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수도 있다. 비용 효율과 정치적 실행 가능성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가족 영향력 분석은 정치 영역 전반에 걸쳐 유용함이 입증되었으며, 넓은 범위의, 초당파적 동의를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4. 결과를 선전하고 적용하라.** 가족 영향력 분석이 한 어떤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나 반대로 결론이 나는 경우는 드물다. 대신, 그 정책과 프로그램이 어떻게 특정한 가족 유형이나 특정한 가족 기능에 영향을 미쳤는가와 관련한 함의는 도출해 낼 수 있다. 정책입안자들과 공공에게 결과를 선전하는 것은, 가족의 웰빙에 대해 보다 호응하고 보다 지지하는 정책, 프로그램 그리고 실행을 개발하는데 있어 관심과 추진력을 생산해 낼 수 있다.

## 가족 영향력 체크리스트

1. 가족 책임: 정책과 프로그램들의 목적은 가족이 사회에서 수행하는 능력, 예를 들면 가족 형성, 파트너 관계, 경제적 지원, 자녀 양육, 부양 등과 같은 것을 지원하고 힘을 실어주는 데 있다. 가족 기능을 대체한다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만 한다. 정책, 프로그램, 또는 실행은(앞으로 모든 질문의 주어임. 역주)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가족들이 그들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최대 능력을 쌓도록 도와주고, 꼭 필요하지 않는 경우라면 가족의 책임을 떠맡지 않도록 도와주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의존적이고, 심각하게 아프거나 또는 허약한 구성원이 있는 가족이 이들을 위한 경제적 그리고 또는 돌봄의 책임을 떠맡을 때의 어려움을 이 가족의 가족 구조, 자산, 그리고 생활의 도전 과제들에 따라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높은 자녀 양육 빚, 낮은 교육 수준, 저임금, 그리고 실업 등과 같은 재정적인 불안정에 대한 근본 원인을 다루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일, 가족, 공동체에 대한 시간 할애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가족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2. 가족 안정성: 가능한 한, 정책과 프로그램은 커플, 부부, 부모, 그리고 가족 헌신과 안정성을 장려하고 강화해야 한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가족의 구성과 거주에 대한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는 가족 구성원들을 심각한 위해보부터 보호하거나 혹은 가족 스스로의 요구에 의해서 가족 구성원들을 보호해야 할 때뿐이다. 정책, 프로그램, 또는 실행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커플, 부부, 부모 그리고 가족의 의무에 대한 헌신을 더 강화시키고, 결혼이나 가족 결속이 적합한 목표일 때 이를 스스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자산을 분배하는가?</li> </ul>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에 관한 문제들이 심각한 위기가 되거나 가족 구조나 가족 기능을 서서히 약화시키는 만성적인 상황이 되기 전에 가족들이 이 문제들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가?</li> </ul>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의 안전, 웰빙,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전체로서의 가족의 통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가?</li> </ul>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개입하여 가족을 대표하여 결정을 내리게 되는(예를 들어 가족에서 어린이나 성인을 내보내야만 되는 경우) 상황이 발생할 때 이를 위해 명확하고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가?</li> </ul>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들이 스트레스 쌓이는 상황을 겪거나 변화를 겪을 때 규칙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가?</li> </ul>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이 들, 이혼, 입양처럼 가족관계의 주된 변화들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며 지속적인 부양과 관심을 요구하는 과정임을 인지하고 있는가?</li> </ul>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해당 없음

■ 어떠한 쟁점과 관련된 모든 가족 유형(예를 들면 입양 부모, 입양으로 간주되는 부모, 친부모 그리고 위탁 부모에 대한, 그리고 재혼 가족, 친부모로 간주되는 부모, 의붓 부모, 동거와 비동거 부모 등)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가?

3. 가족 관계: 정책과 프로그램들은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가족 유대(관계)의 힘과 지속성을 인식해야만 한다. 그리고 강한 커플, 결혼, 부모 관계를 만들어내고 유지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책, 프로그램, 또는 실행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해당 없음

■ 개인의 발전과 웰빙이, 가까운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의 질과 가족 구성원들 서로 간의 관계에 의해 깊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가?

■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커플, 직계가족 구성원, 그리고 확대 가족을 가족관계의 향상에 초점을 두고 참여시키고 있는가?

■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의 경쟁적인 요구, 권리, 관심을 평가하고 균형을 맞추고 있는가?

■ 가족 학대, 폭력, 또는 방치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u>매우 그렇다</u>	<u>보통이다</u>	<u>별로 그렇지 않다</u>	<u>해당 없음</u>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입과 삶의 사건들이 가족 역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가? 그리고 적절하게 이루어질 경우, 개인적인 기대, 문화적인 규범, 가족 스트레스, 가족생활의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의 역할, 규칙, 리더십의 변화와 안정의 균형에 대한 필요를 지지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가?</li> </ul>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커플, 결혼, 부모 그리고 가족의 건강한 관계들을 위해 필요한 지식, 커뮤니케이션 기술, 갈등 해결 전략, 문제 해결 능력들을 제공해 주는가? 또는 가족들을 정보와 교육 자원으로 연결해주는가?</li> </ul>

4. 가족 다양성: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들은 여러 가족 유형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책과 프로그램은 가족생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만 한다. 그리고 단지 문화적, 인종적 혹은 민족적 배경, 경제적 상황, 가족 구조, 지리적 장소, 특수한 요구의 유무, 종교적 소속, 또는 생의 단계 등에 근거해서 가족들을 차별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u>매우 그렇다</u>	<u>보통이다</u>	<u>별로 그렇지 않다</u>	<u>해당 없음</u>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 프로그램, 또는 실행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li> </ul>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생의 단계, 가족 구조 그리고 문화적, 경제적, 지리적, 인종/민족적, 종교적 배경에서 오는 다른 태도들, 행동들, 그리고 가족 가치들을 확인하고 존중하는가?</li> </ul>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키는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일상과 의례를 존중하는가?</li> </ul>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특수한 요구(예를 들면 인지적, 감정적, 신체적으로)가 있는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돌봄과 조정 서비스에 수반되는 복잡성과 책임감을 인지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지리적으로, 인종적/민족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다양한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을 보장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운영상의 철학과 절차가 문화적으로 호의적이며 프로그램 직원들이 문화적으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어떤 사안 또는 문제의 증상보다 그에 관한 근본 원인을 (예컨대 경제적, 제도적, 정치적, 사회적/심리적 원인) 인정하고 다루려고 노력하는가?

5. 가족 참여: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전문가들과 가족들 사이의 파트너십을 권장해야 한다. 조직 문화, 정책 그리고 실행은 관계적이고 참여적이어야 하며, 가족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가족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실행이어야 한다. 정책, 프로그램, 또는 실행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서비스의 기간과 강도가 가족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전체 정보와 다양한 선택을 가족들에게 제공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가족들과 협업 속에서 일하고, 가족들이 (법의 범위 내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게 도우며, 그들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교육하고 독려하는가?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가족 구성원들, 특히 주변부의 소외된 가족의 구성원들이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 수행과 평가에 참여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가족들이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조차도, 가족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그리고 잠재적인 힘(끈기)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가? 동일 장소 배치, 잘 정리된 지원(접수) 체계와 환불 절차, 그리고 프로그램 제공 단체들, 기관들, 그리고 지식 분야들 상호간의 협업을 통해 접근이 용이하게 만드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인근 장소와 서비스 제공자가, 다양하고 많은 재정부로부터 나온 자산(자금)을 결합시킬 수 있도록 조정 정책과 서비스 시스템을 수립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특히 한정된 자산을 가진 가족이 참여할 때는 감정적 측면에서, 정보의 측면에서, 그리고 물질적인 면에서의 지원(예를 들어 어린이 돌봄, 재정 수당, 교통 등)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가족들을 공동체 자산과 연결해 주는가? 그리고 가족들이 책임감 있는 소비자, 코디네이터, 그리고 자산 관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가족의 삶에 필수적인 사회적 지원(예를 들면 친구, 가족 대 가족 지원, 공동체, 이웃, 자원봉사자, 그리고 믿음과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에 기반하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해당 없음

- 전체 가족(심지어 서비스 범위의 바깥에 있더라도)을 고려하고 있는가? 그리고 가족의 결정과 참여가 서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경쟁적인 요구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인지하고 있는가?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HK+ Research Unit on Family Community, CNU